

LINE UP



Summer of Jeep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은 도시인에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을 만날 때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자갈과 바위, 웅덩이를 통과한 뒤에야 만나는 호젓한 계곡일 때도 있고, 질퍽한 갯벌과 모래 바람을 지난 뒤에 만나는 해변 귀통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길에 Jeep가 동행하겠습니다.

CONTENTS

O4
SUMMER OFF-ROAD
TRIP WITH JEEP

Jeep와 떠나는 오프로드 여행

12

THE JEEP LIFE

RENEGADE 오너의 서핑라이프 16

JEEP & WSL

Jeep가 후원하는 서핑 대회

18

PEOPLE

Jeep 오너 인터뷰 & 인플루언서 시승기

30

NEWS & EVENT

Jeep 신차 & 이벤트 소식

34

JEEP CAMP 2017 도전과열정의 3박 4일

46

JEEP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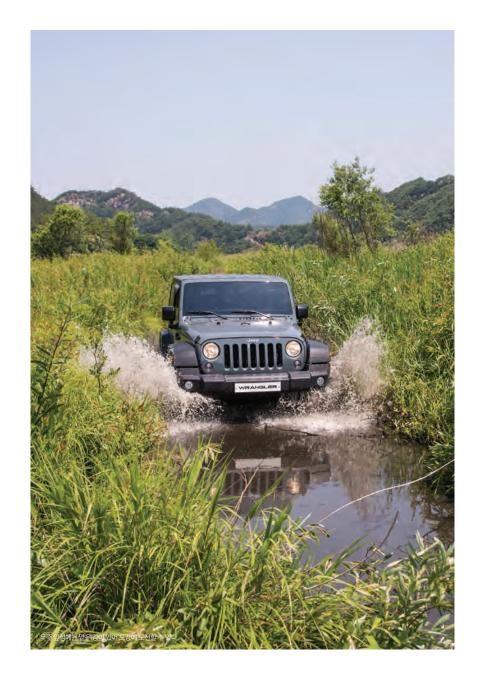
딜러 인터뷰

48

JEEP MAP Jeep 서비스센터













02



이 - 드라이빙 포인트

통행량이 거의 없는 앞섬과 뒷섬 주변 강변에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다. 높게 자란 갈대 사이, 자갈길과 진흙구간, 얕은 강물 위를 도강하는 구간까지 다채롭게 섞여있어 오프로드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02-전망 포인트

물돌이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기 위해서는 무주 읍내 뒷산인 향로봉에 오르면 된다. 무주고등학교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오르면 향로봉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를 따라 20분가량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제1전망대가 향로봉 가는 길이다. 여기서 5-10분만 오르면 향로봉 정상으로 금강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그림 같은 지형을 조망할 수 있다.

03-**앞섬의 맛**

절대 놓칠 수 없는 메뉴가 어죽이다. 음식이 귀하던 시절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활용해 만든 메뉴가 지역 특색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경우이다. 빠가사리'라 불리는 동자개가 주재료인데, 진하게 끓인 육수에 곱게 발라낸 생선살과 불린 쌀로 죽을 끓인다. 여기에 고추장을 넉넉히 풀고 집집마다 각자의 향신료를 더해 맛을 낸다. 수제비 등을 넣어 먹기도 한다.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에 무주 앞섬에 오면 으레 맛보는 메뉴가 되었다. 읍내의 금강식당(063-322-0979), 앞섬다리 인근 섬마을(063-322-2799), 뒷섬마을의 큰손식당(063-322-3605) 등이 유명하다.



O1 — **드라이빙 포인트**

신두리는 특히 오프로드 드라이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자동차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해변이기 때문이다. 평일 이른 시간이나 해질녘 이곳을 찾으면 광활하다는 표현이 들어맞게 넓은 모래사장을 지치며, 이국적인 풍광을 오롯하게 전세낸 듯 즐길 수 있다. 단,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인파가 몰리는 기간에는 해변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02-태안해변길

태안에는 제주의 올레 못지않은 명품 산책길이 있다. 바라길, 소원길, 솔모랫길, 바람길 등 태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두 발로 만끽할 수 있는 7개의 해변길 본 구간과 노약자 구간인 천사길이 있다. 신두리는 학암포까지 약 12km 구간인 바라길에 포함되어 있는데,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예쁜 길을 만나는 기회를 누려보자.



03-**태안의 맛**

태안에서는 박속낙지탕이 유명하다. 박과 낙지를 한데 넣어 끓이는 음식인데 맑은 탕을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메뉴다. 특히 초여름에 많이 잡히는 세발낙지가 으뜸으로 꼽힌다. 식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박과 채소로 맛을 낸 국물에 낙지를 넣어 살짝 익혀 먹고, 이어 수제비나 칼국수를 끓여 먹는다. 맑고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원풍식당(041-672-5057), 이원식당 (041-672-8024) 등이 유명하다.

SURFING AND JEEP CAN TAKE ME ANYWHERE

서핑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녀는 자연과 지구,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다. 괜한 과장이 아니라 서핑이 품고 있는 철학이 작게는 옷과 맥주, 노래부터 크게는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심플하지만 거대한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RENEGADE 오너이자 영혼 깊은 곳까지 서퍼의 마음을 간직한 김수영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JEEP STORY | THE JEEP LIFE 2017 SUMMER









"아직 국내에 서핑의 물결이 상륙하기 전에 서핑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하와이에서 서핑을 배웠어요. 좀 더 적극적인 서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5년 전인데, 파도를 탈 때마다 좋고 바다에 있는 그 자체가 편안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게 맞겠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겠다. 다음엔 이걸 해봐야지 하면서 운동 좀 해본 사람 특유의 성취욕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좋은 파도는 또 엄청 고대하긴 하죠." "여러 모로 운이 좋았어요. 모범생의 삶이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제가 쥐고 있던 욕심을 살짝 내려놨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일과 취미 양쪽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주중에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마케터로 전심을 다해 일하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양양에 와서 서퍼로 살아요. 벌써 4년째네요. 남들은 그녀의 이중생활이라고 하지만 제겐 양쪽의 지향점이 같아요. 친환경이 모토인 회사다보니 서퍼로서 제가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과 늘 어느 한 부분이 닿아있죠."

"양양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서핑의 메카가 되었어요. 전국에 서핑 명소가 여러 곳 있지만 이곳만큼 환경이 좋고 커뮤니티가 발달한 곳도 드물어요. RENEGADE를 만난 건 올해 3월 14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찾고 기다려 만난 저의 첫 Jeep랍니다. 고작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양양을 매주 오가고 휴가도 열심히 다녀서 주행거리가 벌써 7,000km가 넘어요. 단순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동행한다는 점에서 제게 RENEGADE는 서핑과 닮은 점이 많아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시야각도 좋고 운전이 편해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은 보드 두 개에 각종 캠핑 장비를 싸들고 다니는 저 같은 서퍼들에겐 그야말로 딱이죠." 66

바다에 이렇게 뛰어들수 있다는 것, 크든 작든 오늘도 오늘의 파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아요. 넓게 보자면 서핑은 하염없이 파도를 기다리고, 바다의 풍경을 보고, 바다와 하늘과 자연 속에 있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Jeep와 모험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숱한 모험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서핑이다.







위대한 자연의 법칙에 몸을 맡기는 동시에 그 자연을 즐기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서핑은 Jeep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종전 후 군용 차량이었던 WILLYS MB가 모래를 가르며 해변에 나타난 이래, Jeep의 모든 모델은 바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 되었다. 실제로 차체가 크고 단단한 Jeep는 커다란 서핑보드를 운반하는데 제격이며, 모래사장과 물웅덩이가 많은 해안의 험로를 이동하는데 이보다 좋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Jeep는 '세계 프로 서핑 연맹(World Surf League, 이하 WSL)'을 후원하고 있다. WSL은 연간 11회의 남자 경기와 10회의 여자 경기를 치르며 우승자를 가리는데, 세계적으로 서핑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년 내내 세계 서퍼들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이다. WSL 대회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모든 경기가 생중계된다는 것이다.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다면 이 모험에 동참할 수 있다. 우승자는 후원사인 Jeep 등의 로고가 새겨진 노란색 저지를 입는데, 우승의 순간에 우승자만 입을 수 있는 영광의 상징이다. 2017년 6월 현재 호주의 매트 윌킨슨, 하와이의 존존 플로렌스가 남자부 1, 2위를 달리고 있고, 여자부는 타일러 라이트와 샐리 피츠기본스, 두 명의 호주 선수가 각축을 벌이는 중이다.

OS TANAL

01 WSL의리오 프로대회에전시된 Jeep 02 리오컬 프로벨스 비치에서 서핑종인 필립 톨레도 03 2016년 남자부 월드 챔피언에 올라 노란색 저지를 입은 존 존 플로렌스 04 마지 프로대회에 참가한 필립 톨레도





WRANGLER

레이먼킴

셰프, 요리 연구가



"캐나다 거주할 때 근무하던 레스토랑이 멀리 있어서 매일같이 험한 길을 달려 출퇴근해야 했어요. 그때 주저 없이 선택한 차가 바로 WRANGLER였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다른 차를 탔는데, 그때의 승차감, 힘 등을 잊을 수 없어 다시 WRANGLER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어린 딸이 타기에 너무 움직임이 크지 않을까 잠시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 이 차를 탔을 때 덜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가 잠을 못 이루고 보챌 때면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고는 해요. **아내도 제 차를 몇 번 운전해보더니** 자기도 더 와일드한 차를 타보고 싶다며 얼마전 WRANGLER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WRANGLER 커플이에요." "야외에서 요리하며 사람들이랑 나눠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항상 푸드트럭을 동경했어요. 그러던 중 곤지암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줄 것을 의뢰 받았지요. 지난 어린이날에는 아내와 딸아이가 함께 와서 제가 일하는 사이 화담숲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푸드트럭 덕분에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나들이 나온 기분을 더해주고, 가족들에게 자연을 선사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JEEP STORY | PEOPLE 2017 SUMMER

WRANGLER

강재준

Cafe737 대표, 미술작가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물 때, 오로라 보러 옐로나이프를 찾았다가 그곳에 반해 아예 이사를 결심했어요. 극지방이다 보니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고립되기 일쑤였죠. 그때 지인 소유의 WRANGLER를 얻어 탔는데, 다른 차들이 오가지 못해 난감해 하는 와중에 혼자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WRANGLER 앓이'를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구입했어요. 경주는 옐로나이프처럼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에요." "개인 작업이나 카페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큰 목재를 나를 일이 많아요. 한때 픽업트럭을 살까 고민도 했는데, 아무래도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WRANGLER는 하드탑이 분리되고 뒷좌석이 풀딩되니 큰 자재도 너끈히 실을 수 있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선을 강탈하는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JEEP STORY | PEOPLE 2017 SUMMER





WRANGLER

Hassan Haider

'맥파이 브루어리' 대외마케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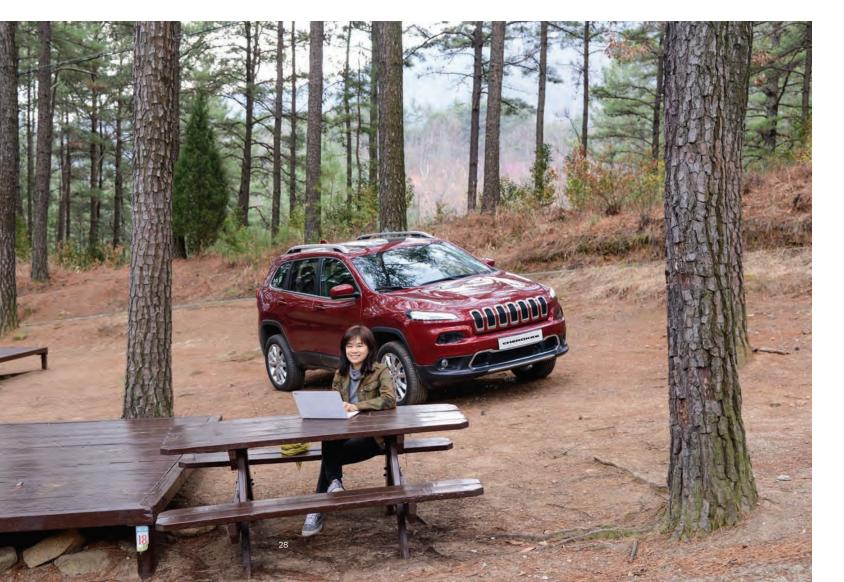
"WRANGLER는 어릴 적제 드림카였어요. 20년 전 처음 면허를 땄을 때 WRANGLER가 무척 갖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시승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학생이던 제가 사기에는 너무 고가의 물건이었지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30대가 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시에서 WRANGLER를 타다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WRANGLER는 오프로드에 무게를 둔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도심 주행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차고가 높아 시야가 확 트이니 오히려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친구가 경기도 광주에서 전시회 겸 작은 행사를 갖는다고 하여 신선한 맥주를 나눠주러 가는 길이에요. 케그 두 개와 컵, 디스펜서, 맥주 칠링용 바스켓 등 챙길 짐이 정말 많네요. 뭐 다른 차에도 이 짐들을 다 넣자면 들어가겠지만, WRANGLER만큼 여유롭지는 않겠죠. 멀리까지 행사장 가는 일이 잦다 보니 비포장도로를 만날 때가 많은데, WRANGLER는 차체가 높아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험로가 반갑다고 할까요? 회사 차로 한 대 장만해야겠어요."



JEEP STORY | PEOPLE 2017 SUMMER

CHEROKEE

윤재연 ^{영화감독}







"그전까지 운전하는 즐거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동료 감독들은 스토리가 안 풀릴 때면 혼자 멀리 드라이빙을 다녀오던데, 저는 영화제 때문에 가까운 제천을 갈 때도 운전하기 싫어 다른 감독 차를 얻어타고는 했어요. 그런데 CHEROKEE의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니 그제야 드라이빙의 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좋은 차를 몰고 싶어하나봐요.** 이번에 준비하는 영화가 성공하면 무조건 CHEROKEE를 사려고요. 그걸 동력 삼아 시나리오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후반 작업 차 광양에 내려왔어요. 광양시에서 백운산에 있는 캐빈을 마련해줬는데, 호젓하니 작업하기에 정말 좋네요. 지척에 옥룡사 동백나무숲도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섬진강 매화마을도 둘러볼 수 있어요. 두 꽃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제가 공포영화를 즐겨 찍어서 그런지 빨간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을 보면 피로 물든 섬뜩한 장면이, 매화는 예쁘지만 왠지 모르게 처연한 애정 신이 떠올라요. 여러모로 저한테 영화적 영감을 주는 장소들입니다."

JEEP STORY | PRODUCT NEWS 2017 SUMMER

NEW LOOK OF JEEP

01 - WRANGLER UNLIMITED RECON

Jeep 코리아는 지상 최강 오프로더의 성능과 감성을 강조한 Jeep WRANGLER UNLIMITED RECON을 어비와 73.1:1의 크롤비를 제공하는 락-트랙(Rock-Trac) 4륜구동 시스템과 트루-락(Tru-Lok) 등을 설치해 베이 착했다. 블랙, 화이트, 고비의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다.

스 모델보다 더욱 강력해진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한다. 사 륜 구동의 힘을 보여주는 헤비 듀티 캐스트 디퍼런셜 케이 한정판 모델로 출시했다. 기존의 Jeep WRANGLER 스(Heavy-Duty cast differential covers)와 오프로 UNLIMITED RUBICON을 베이스로 개발된 4 도어 모 드 시 차체 하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모파 락 레일 델인 WRANGLER UNLIMITED RECON은 4:1 저속 기 (Mopar rock rails)과 오프로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된 17인치 알루미늄 휠도 장

















02 - WRANGLER UNLIMITED JK

31

오프로드의 강력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던하고 면에서 보면 Jeep 스타일의 실버 메탈릭 그릴과 실버컬러 GLER UNLIMITED SAHARA를 베이스로 개발했다. 정 JK만의 매력을 발산하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Jeep WRANGLER 의 'Trail Rated' 배지, JK이니셜이 음각된 배지, 한층 깊어 UNLIMITEDJK 한정판 모델도 곧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 헤드라이트 윙 등이 도드라진다. 후면에선 Jeep의 실 예정이다. 한정판 모델로 선보이는 Jeep WRANGLER 버 로고를 포인트로 가미한 화이트 컬러의 타이어 커버가 UNLIMITED JK는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Jeep WRAN 감출 수 없는 매력을 드러낸다. 화이트 톱 루프가 어디서도

JEEP STORY | PRODUCT EVENTS 2017 SUMMER



03 — RENEGADE TRAILHAWK PHOTO SESSION

(Selec-Terrain for Trailhawk) 지형설정 시스템 등이 견고함과 디자인을 겸비한 외관을 직접 촬영했다.

Jeep 코리아는 지난 달 서울 광화문 인근 광장에 새롭 특징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루비콘 트레일 등 세계에서 게 출시한 Jeep RENEGADE TRAILHAWK를 설치하 가장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로 꼽히는 곳에서 성능을 검증한 고 미디어는 물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토 세션을 진 차량에만 붙일 수 있는 'Trail Rated' 배지를 획득한 모델 행했다. 5월 출시한 RENEGADE TRAILHAWK는 고성 로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 능 오프로드 버전으로,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로우(Jeep 춘 차로 꼽힌다. 행사 참여자들은 바위를 타고 올라가 하부 Active Drive Low) 시스템, 트레일호크 셀렉-터레인 구조를 일부 드러낸 RENEGADE TRAILHAWK를 보면서









04 — Jeep WILL KEEP RUN with Harley-Davidson







4륜구동 SUV의 명가 Jeep와 모터바이크의 대표 브랜 다. 지난 3년간 협업에 대한 좋은 평가에 힘입어 Jeep는 2017년 할리 데이비슨의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사로 활동한다.

1903년 시작한 할리 데이비슨은 커스텀 모터바이크에 대 한 꿈을 대변하는 2륜차 오프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두 브랜드는 자유와 모험가 정신을 근본적으로 공유한다.

Jeep는 우선 올해 할리 데이비슨의 주요 3대 랠리에 모습 드 할리 데이비슨의 유럽지역 협업이 2017년에도 이어진 을 드러낸다. 지난 5월 프랑스 생트로페에서 펼쳐진 '유로 페스티벌(Euro Festival)'을 시작으로, 6월 스위스 루가 노에서 치러진 '유러피안 H.O.G. 랠리(European H.O.G 펼쳐지는 주요 대회와 이벤트에 핵심 파트너이자 공식 후 Rally)', 9월 오스트리아 파커 시에서 예정된 '유러피안 바 이크 위크(European Bike WeekTM)'에도 등장한다. Jeep가 세계 4륜구동 오프로드의 역사를 쓴 브랜드라면, Jeep는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코틀랜드, 네덜 란드 등에서 펼쳐지는 할리 데이비슨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한다. 현장 관객은 Jeep 라운지 체험과 시승, Jeep 공식 액세서리 구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JEEP STORY | JEEP CAMP 2017 2017 SUMMER

MOMENT OF FEVER, JEEP CAMP 2017

국내 최대의 오프로드 드라이빙 챌린지 축제인 Jeep Camp 2017이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간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Jeep Camp 2017에는 무려 1,000여 팀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3박 4일이 짧게만 느껴졌던 Jeep Camp 2017을 공개한다.





JEEP GOES WILD!

6월 3일 오후, 알록달록한 수백 대의 Jeep가 횡성군 웰리힐리파크로 열을 이루어 집결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무려 1,000여 팀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Jeep Camp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참가팀 수이다. Jeep는 최근 오프로드 드라이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해 올해 Jeep Camp 역사상 최초로 Jeep 미보유 고객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접수 초반부터 큰화제를 모았다. Jeep Camp 2017은 크게 두 개의 오프로드 파크를 구성했다. 하나는 Jeep 오너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전용 시설 'Jeep 오너스 파크', 다른 하나는 예약제로 운영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챌린지 파크'이다. '챌린지 파크'는 특히 나무다리, V계곡, 시소, 물웅덩이 등다양한 장애물을 스릴 넘치게 구현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스키 슬로프를 따라 가파른 정상까지 올라가는 '피크 코스', 앞차의 불빛에만 의지해 한밤중 경사를 오르는 '아간 투어', 최강의 오프로더 WRANGLER만 도전할 수 있는 '와일드 코스' 등이 이어졌다.





해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Jeep Camp답게 부대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로프 올라가기, 벽 뛰어넘기, 타이어 뒤집기, 럭비공 던지기, 타이어 볼링 등은 다양한 연령의 Camp 참가자들이 참여했고, '스파르탄 레이스'에서는 지프의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또 원시 형태의 불 피우기 체험을 하는 '부시크래프트 레슨'과 천체 망원경 체험 등 평소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해 어린 아이를 동반한 참가자에게 칭찬을 받았다. 인기 그룹 '10센치'의 축하공연은 Jeep Camp 첫날 밤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수놓았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Jeep와 함께 누빈 숙련된 캠핑 실력을 뽐내며 캠핑을 즐겼다.

Jeep Camp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전문가들에게 Jeep 차량을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 Camp 참가자들은 오프로드 출전 전에 오프로드에 나가도 무리가 없는지 엔진과 제동장치, 하부 상태 등 세심한 점검을 받았다. 이밖에도 Jeep는 '크로마키 포토존'과 'SNS 포토 프레임' 등의 포토 스팟을 설치해 Jeep Camp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려는 사람들로 내내 붐볐다.

Jeep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오프로드 구간과 드라이빙 팁 등을 공유하며 누구와도 금방 화기애애해지는 모험가 특유의 친화력을 보였다. 낮에는 흥미진진한 오프로드 구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는 바비큐와 캠핑으로 뜨거웠던 3박 4일이 막을 내렸다.



JEEP STORY | JEEP CAMP 2017 2017 2017 2017 SUMMER

VOICES OF JEEP CAMP 2017 ATTENDANTS

Jeep Camp 2017의 주인공은 참가자들이다. Jeep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길을 Jeep와 함께 온몸으로 달리는 사람들. Jeep Camp 2017에서 열기 가득한 현장을 온몸으로 즐긴 참가자들을 만났다.





김정원, 박봉희 WRANGLER 오너 회사원

"WRANGLER는 우리 부부가 마흔이 된기념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안겨준인생의 선물이었어요. 디자인이 정말 다른 차와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에 들고, 둘이서캠핑 다니는 걸즐기기 때문에 더고민할 이유가없었죠. 오늘은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오프로도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등줄기에땀이 찼더라고요. 특히 시소 코스에서 차량이갑자기 뚝떨어져서 화들짝 놀랐어요. 순간 온몸에기분 좋은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Jeep Camp에참여하며 Jeep 오너로서 자부심이 한층 더두터워졌어요. 평소 도심에서는 WRANGLER의디자인을 즐겼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별화된기능과 Jeep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었죠. 벌써부터 내년 행사가 기대돼요!"











김현준

RENEGADE 오너 | 오디오 프로듀서

"지난 10월에 RENEGADE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Jeep Camp에 참가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나 몰라요. 아마 제가 일등으로 예약했을 걸요. 티켓 오픈하자마자 바로 참가 신청하고 이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좀전에 오프로드 체험을 했는데, 왜 Jeep가 아니면 안됐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WRANGLER 전용 코스가 가장 스릴 넘쳤는데, 제 차로는 진입이 어려워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WRANGLER 차량을 빌려 타고 WRANGLER 전용 코스를 한바퀴 도니, 이번에는 또 WRANGLER가 Jeep를 상징하는 모델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음 차는 무조건 WRANGLER입니다."

JEEP STORY | JEEP CAMP 2017 2017 2017 2017



42

김태현 CHEROKEE 오너 | 회사원

"아버지가 오랫동안 CHEROKEE를 애지중지 타셨어요. CHEROKEE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 뒷모습을 동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첫 차는 무조건 아버지 차와 같은 모델을 사야지, 다짐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빈티지에 마음이 가고, 그중에서도 밀리터리 감성에 끌려 한때는 이 차뿐 아니라 같은 모델의 골드 칼라 차량, CHEROKEE 트럭까지 소장했었어요. Jeep Camp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는데,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량이 한데 모여 있으니 괜히 흐뭇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기분 좋은 연대감이 드네요."





비보유자들

김승민

모델 겸 포토그래퍼

"운동 메이트한테 Jeep Camp 얘기를 듣고 운동 마니아로서 스파르탄레이스 체험이 궁금해 참가했어요. 올해부터는 Jeep 비보유자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와보니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오프로드가 흥미롭더라고요. 도심에 갇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무기력했는데, 이렇게 오프로드를 접해보니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이민규

초등학교 교사

"푸른 잔디에 맑은 하늘, 그리고 그사이를 질주하는 Jeep 차량이 장관을 이루네요.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부모님이랑 함께 와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오프로드 체험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훗날 가정을 꾸리면 꼭 Jeep Camp에 참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김화길

모델

"제가장교 출신이라 군대에서 4륜구동을 몰아봐서 오프로드에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WRANGLER를 빌려 타고 오프로드 코스를 돌아보니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드라이브는 혼자 하는 취미라고 여겼는데,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낭떠러지다' '물이 있다' '벽이다' 말해주니 함께 공존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JEEP STORY | JEEP CAMP 2017 2017 2017

JEEP CAMP 2017

with Calendar

무려 1,000여 팀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린 Jeep Camp 2017. 3박 4일간의 이벤트를 위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캘린더를 통해 Jeep Camp 2017의 준비과정을 들여다본다.



Jeep Camp 일정 공개

Jeep Camp 2017의 일정을 공개하고, 참가 신청 전용 마이크로 사이트(www.jeepcamp2017.co.kr)를 오픈했다. 올해는 특별히 Jeep를 소유하지 않은 고객도 Jeep Camp에 참가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또 기존에 2일이던 행사기간을 4일로 늘려 대회 규모도 대폭 확충했다.





First Challenger, Jeep Camp 선발대

미리 Jeep Camp 2017을 맛보고 싶은 마니아들을 위해 Jeep Camp 선발대, First Challenger를 모집했다. 선발대는 1박 2일간 웰리힐리파크 일대의 다채로운 오프로드 코스를 미리 달리고 부시크래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체험했다.



도심 속 이벤트

"SPARTAN WITH JEEP"라는 이름으로 Jeep가 스파르탄과 함께 도심 곳곳을 찾았다. 일반 소비자에게 Jeep의 매력을 알리고 Jeep Camp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암동 미디어시티 인근, 홍대 주차장길, 강남역 지오다노 인근 등 비즈니스 밀집 지구이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스폿을 선발한 것. 현장에서 미션을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Jeep의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현장 인증샷을 Jeep Camp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Jeep Camp 2017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J U N E 06

5월 28일 신청 마감 결과 역대 최다 팀과 인원이 Jeep Camp 2017 참여를 희망했다. Jeep 코리아는 1,000팀에 달하는 참가자가 최고의 Camp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오프로드 코스를 거듭 점검하고, 부대행사와 축하 공연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캠핑 등 숙소 환경과 식사는 물론, 긴급 차량 점검 서비스, 안전을 위한 의료팀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03-06, 06, 2017 **D** - **D A Y**

Jeep Camp 2017 참가자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Jeep와함께 웰리힐리파크로 집결했다. 3개월 동안 Jeep 코리아가 공들여 준비해온 여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Jeep의 도전 정신과함께하는 'Jeep Camp'는 정통 SUV 브랜드 Jeep가 자랑하는 64년 전통의 오프로드 축제로 매년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등세계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된 이래매년 그 규모와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살때 Jeep 관련 딜러 사에서 일을한 게 인연이 되어서 2007년부터 렉스모터스에서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만 10년째인데 Jeep는한결같은 느낌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있어요. Jeep의 디자인처럼요. 고객층도 눈에띄게 젊어졌고, 최근에는 여성 고객이 유의미하게증가했습니다. 북미에선 여성에게 친근한 Jeep이나 과거 국내에선 여성 Jeep 오너가 참드물었거든요. 또 차에 대해 깊이 있는 애정과지식을 두루 갖춘 고객이 증가한 것도 Jeep의특징입니다. 예를들어 차량 인테리어 재질로많이 사용하는 우드그레인의 진짜 나무 소재를감별하고, 의자의 사이즈에 맞춰 실내 규모를가능해볼 정도입니다."

"10년째 Jeep 딜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Jeep로 인해 가족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끈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그렇고, 다른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나도 Jeep에 탄 사람은 거의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4륜구동이 오프로드에 강한 차는 온로드에선 약하다는 도식이 있었는데, Jeep는 멈추지 않는 기술적 진보로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성능 차이를 눈에 띄게 줄여냈습니다. 저는 최신 WRANGLER와 오리지널 비키니 탑이 인상적인 25년 된 빨간 빈티지 WRANGLER로 고객과 함께 여행 다니며 제대로 Jeep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Jeep는 그야말로 어디든 즐기며 갈수 있어요. 안정성과 4륜구동의 힘은 자타공인이고, 노면 상태 걱정 없고, 눈이나 비 등 날씨 영향도 거의 없고, 어디든 주차하기도 편하니 놀러가기 정말 좋은 차입니다.



CENTER

01_서울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1588-4450 렉스 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SERVICE

02-462-3131 빅토리오토모티브 서초 서비스센터

02-3478-0009 프리마모터스 강서 서비스센터

프리마모터스 강서 서비스센터 02-6925-0393

02_인천

정은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032-581-0166

03_경기도

프리마 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031-922-0117

보성 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031-237-4230

빅토리오토모티브 분당(용인)서비스센터 031-896-0005

04_강원

강원모터스 원주서비스센터 033-766-6301

O5_충북·대전

렉스 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043-277-3320

06_충남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041-523-2211

07_전북

라온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063-271-7300

08_전남·광주

선일 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062-676-8371

09_경북·포항

경북 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054-283-5336

10_대구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053-564-0110

11_울산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052-272-7600

12_부산

우진모터스 남천 서비스센터 051-755-8572 해운대 서비스센터 051-755-8572

13_경남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055-296-100

14_제주

프리마 모터스 제주서비스센터 064-745-4588



Jeep



QR코드 찍고 특별한 행운을 잡으세요! www.jeep.co.kr 🕤 ③